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서울 선교부장 하 근수

최 근에 우리 가정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족이 한 명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는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이를 계기로 우리가 어린 아이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일들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눅 18 : 17)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유치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 아이같이 순수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치해진다는 것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며, 어린 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연령에 달해서 우리의 생활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린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중 하나는 의존성입니다. 어린 자녀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하듯이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또 하나의 특성은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 받아들여야 할 특성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한 어린이에게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시단다”라고 말한다면 어린이는 그 사실을 조금도의심없이 받아들입니다.

어린이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것이며, 평범한 일에도 호기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른은 바쁜 일로 놓치기 쉬운 행복을 어린이는 얻습니다. 어른들은 새 집이나 개미집, 거미의 신비로운 집 등을 소홀리 생각하기 쉬우나 어린이는 이러한 단순한 것에서도 즐거움과 신비를 발견합니다. 나는 셰익스피어가 말한 “세상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른의 감각으로는 스쳐버릴 일들을 일깨워 주는 어린이 때문에 생활에 기쁨을 얻습니다.

아버지로서 새로 태어난 어린이를 안고 있을 때 어린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며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높은 차원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베냐민 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 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며,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하지 아니할진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적이 되리라. (모 3 : 19)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어린이날을 맞은 이 달에 어린이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

신학 연구원 입학식

1978년도 제1학기 신학 연구원 입학식이 지난 3월 4일 오후 5시 신학 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총관리 역원인 에드니 와이 고마쯔 장로와 교회 교육기구 부교육감인 조 제이 크리스찬슨 박사와 아시아 지역책임자인 프랭크 디 데이 박사가 참석하여 영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날 입학식에는 서울 스테이크 부

말씀하시는 이 호남 원장과 신의 지도자들



장단, 서울 서 스테이크 김 창선 부장, 하킨스 서울 선교부장 및 학부형들이 참석하여 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 호남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학생은 모두 신학 연구원에서의 영적 및 지적 교육을 통해 사회와 교회를 발전시키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신학 연구원이 사랑과 지혜의 저수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년도에는 156명이 입학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4년간의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입학식을 마치고 도서관에서 가진 간담회



열심히 경청하는 신입생

일문 유치원 신입 원아와 학부모 일동



일문 유치원 입학식

지난 3월 10일 오전 제1와드에서 일문 유치원 78학년도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식장에는 서울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최 옥환 부장이 참석하여 모임을 관리했고 제1와드의 손승은 감독이 배석했다.

최부장은 식사에서 인간 교육은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시고 자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설명하였다.

식이 끝난 후 입학 기념 촬영이 있었고 참석한 모든 학부모에게는 손 승은 감독이 마련한 가정의 밤 교재가 한 권씩 선물로 전달되었다.

김 산 형제 80회 생신 축하

지난 3월 5일, 금식 주일을 맞아 서울 스테이크와 서울 서 스테이크는 제2 와드에 서 합동 노변의 밤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서울 서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인 김 산 형제의 80회 생신을 축하하고 젊은 청소년들에게 충효 사상을 심어 주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되었다.

노변의 밤을 갖기 1 시간 전에 양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따로 모임을 가져 생일 축하 노래와 생일 케이크와, 선물로 생신을 맞는 김 산 형제를 기쁘게 해 드렸다.

이날 본 노변의 밤에는 한국을 방문 중인 신학 연구원 부교육감 크리스찬슨 형제가 참석하여 훌륭한 간증을 전해 주셨고, 이어서 김 산 형제가 오랜 경험에서 얻은 긴 간증의 말씀을 들려 주었다.

김 산 형제는 과거의 많은 사회적 유대와 경험과 생활을 지拂하고 값진 진주인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된 교회에 개종하여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된 것을 하나님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변의 모임에는 양 스테이크에서 800여명의 성도가 참석했다.

김 산 형제는 1898년 3월 3일에 함북 중성에서 출생하여 11세 때 만주 간도성에 들어가 소학교를 졸업했고, 18세 때 경북 안

말암하시는 김 산 형제님과 회중



케이크를 자르는 김 산 형제님 부처

동에서 중학 2년 과정을 이수했으며, 평북 신성 중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 숭실 대학을 졸업한 후, 중국 남경에 있는 금능 대학에서 신학과를 졸업했다.

1919년 3월 1일 삼일운동으로 1차 투옥되었고, 1921년 상해 임시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독립 운동을 하다가 재차 투옥되기도 했다.

그후 감리교회 목사로 13년간 봉직했고, 5대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20여년간 정치인으로 크게 활약한 바 있다.

그는 1969년 7월 5일에 6와드 소속 선교사로부터 물문경을 받아 읽고 간증을 얻어 개종한 이래 고양자부 지부장직을 역임했고 지금은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기념품을 증정하는 김 산 스테이크 부장.



상호부조회 136주년 기념식

서울에 있는 양 스테이크는 상호부조회 창립 136주년 기념식을 1 와드와 2 와드에서 각각 따로 가졌다.

서울 스테이크는 1 와드에서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 감리하에, 서울 서 스테이크는 2 와드에서 김 창선 스테이크 부장 감리하에 가졌다.

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136주년 기념식사와 간증의 말씀으로, 그리고 2부에서는 각 와드/지부 상호부조회 재능 발표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서울 스테이크는 모임 1부에서 상호부조회 담당 고등 평의원 이 강우 형제의 말

서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활동 모습



씀과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의 말씀이 있었다.

이 호남 부장은 말씀에서 룯기와 잠언 31장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2부에서는 각 와드/지부에서 준비한 합창, 무용, 연극 등의 발표가 있었다.

서울 서 스테이크 모임은 1부에서 김도필 자매님과 김 창선 부장의 말씀이 있었다. 2부는 경전 퀴즈 대회, 무용, 연극, 음악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이날 양 스테이크는 1부 순서와 2부 순서 사이에 식사 시간을 두어서 각 와드 지부에서 정성들어 준비한 음식이 참석자 전원에게 제공되었다.

서울 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활동 모습

